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수시2차 논술 출제의도

[문제 1]

[문제 1-1]은 세 개의 용서 관련 제시문들을 비교·대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상적인 교과 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큰 무리 없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문을 비교·대조할 때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그 기준은 수험생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중심으로"라고 하여 그 기준을 주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차근차근 비교·대조해 가면 된다. 만약 수험생이 자신의 독창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세운다면 그 답안은 결코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없다.

제시문 (가)에서는 가해자가 타인에게 잘못했을 경우 피해자가 그런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경우의 용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용서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나)에서는 가해자가 고의성이 없이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가 그런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본다. 제시문 (다)에서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사람을 가해자로 여김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를 설정하고 그런 경우에도 용서가 유효하다고 본다. 이런 세 가지의 경우를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용서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술하면 된다.

[문제 1-2]는 우선적으로 제시문 (라)를 제대로 읽어내고 있는지를 판별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지수'와 '데이브'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서술할 것을 요구한다. 글을 제대로 읽은 수험생이라면, '지수'와 '데이브', 두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 개인의 성격 탓이라기보다는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술하면 된다. 물론 제시문 (라)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해야 한다.

다음으로 [문제 1-2]는 '지수'와 '데이브'가 용서하는 과정을 밟는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 것인지를 묻고 있다. 앞의 [문제 1-1]에서 (가), (나), (다)의 서로 다른 용서에 대해 비교 대조해 보았으니,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라)와 연계하는 글을 쓰면 된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면 된다. (가), (나), (다) 중에서 하나를 택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선택한 용서의 방안이 '지수'와 '데이브'의 용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기술하면 된다.

[문제 2]

제시문의 그림은 사람들이 자기고양 동기를 일관성 동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한 사람들이 일관성을 추구한다면 낮은 자존감을 확인하는 부정적 평가자를 받아들이려 할 것이고, 반대로 자신에 관한 호의적인 견해를 원한다면 긍정적 평가자를 선호할 것이다. 그림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보면 부정적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비우호적인 평가자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일관성 동기가 자기고양 동기보다 사람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지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우호적인 평가자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정적 자기개념을 지닌 사람들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기개념과 일관된 정보를 선호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을 상승시키는 정보를 발견하려는 욕구에서 나온 자기고양 동기를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 자기개념을 지닌 사람들의 결과만으로는 자기 일관성 동기와 자기고양 동기 중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셋째, 만일 사람들에게 자기고양 동기가 더 중요하다면, 긍정적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이든 부정적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비우호적인 평가자보다 우호적인 평가자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다. 그런데 그림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자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자기고양 동기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